

지역 소식통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실무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운영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박설인 전문 컨설턴트 [사회적기업 '도로시앤컴퍼니, 죽산포레스트(김제지점)' 대표]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의 이행 사항으로 구성됐다.

그간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등 실무 과정과 관련해 관여별 통합지원기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정책 축소로 지원기관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며 기업의 실무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사회적기업 실무자는 "올해부터 지원기관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사업보고서 작성·사회적가치 지표 측정 등 운영 실무가 걱정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큰 도움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덜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8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앞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신청을 받아 145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농작업 편의장비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기준은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다용도(자동) 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와 금년에 추가된 소형관리가 있다.

김제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비 25%, 시비 56%를 지원해 보조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만금 2호 방조제 환경 정비 돌입

김제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발대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7일,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순회하며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근속 개발사업단장의

당부에 이어,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 진행될 작업 방법을 세밀히 안내하는 등 사전교육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는 금년도 사업에 기간제 근

로자 15명을 선정해 김제시 해안가(새만금 2호 방조제)로 떠나려오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해양폐기물 무단 투기 지도·감시 활동을 병행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플라스틱, 페어구 등 다양한 폐기물이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해양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한 때, 해안을 상실했던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21. 1. 14.)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양도시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10.88km 해안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소근속 개발사업단장은 "체계적인 연안 정화활동을 통해 김제시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바다,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7일,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순회하며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발대식을 진행했다.



우석대 지역문제 중점 연구소가 우석대 학생들과 완주군 삼례읍의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완주군-우석대, 빈집 활용 프로젝트 돌입

현황 분석해 활용방안 도출 예정

우석대 지역문제 중점 연구소(연구소장 김천홍)가 우석대 학생들과 완주군 삼례읍의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읍은 우석대가 소재한 곳으로 방치된 다가구형 주택을 완주군이 빈집재생사업사업을 통해 지역민, 대학생,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지역에 늘여가는 빈집과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관내 빈집 현황을 연도별, 지역별, 기존 활용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 학생은 "주변

의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면서 정말 많이 지나온 곳인데,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진행을 참관한 김순선 완주군 주거복지팀장은 "빈집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학생들이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장기간에 걸쳐 찾는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세연 우석대 교수는 "우리 지역에 밀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그리고 더 나아가 증거에 기반한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완주군의 지역재생 의지를 정교하게 정확화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영치 운영

총 1억3000만원 중 3300만원 징수

김제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합동영치를 실시한 결과 93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들 차량의 총체납액은 1억3000만 원이며 체납액 징수액은 3,300만원이다.

세정과, 교통행정과 및 읍면동 직원(4개조 41명)이 참석한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단속반은 모바일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 2회(관외축탁 차량은 3회) 이상 또는 1회 이면서 다른 체납이 3건 이상인 차량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영치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읍면동과 연계하

여 진행하는 방식의 영치활동을 월 1~2회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영치 범위를 차량 밀집 지역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해 읍면동과 연계해 권역별로 영치활동을 진행할 것을 표명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활동한 후 "역대 최대 폭의 세수 결산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화해 꾸려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영치 활동을 통해 시 자주 재원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삼례문화예술촌 보부상 마켓, 비 예보로 한 주 연기

오는 27~28일 개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보부상 with 완주농부마켓'이 비 예보에 따라 한 주 연기한다.

18일 완주군은 당초 오는 20일부터 21까지 2일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열 예정이었지만 비 예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8까지로 그 시기

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90여 개 보부상 셀러들의 핸드메이드 생활용품, 먹거리, 가공품 등을 선보이고, 완주군 귀농귀촌인들이 정성 들여 재배한 농산물로 구성된 농부마켓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대행사는 27일에 찾아가는 예술버스 사업으로 '미술쇼, 버블쇼' 공연과 완주 청년예술인들로 구성된 '역사 국

악 퍼포먼스 마당놀이'가 열릴 예정이다.

28일에는 삼례문화예술촌 상설공연으로 선정된 '오케스트라 앙상블' 등 풍성한 공연이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3-290-3862~3번으로 문의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제1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내일 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

김제시 청소년을 위한 '2024년 제1회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오는 20일 시민문화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즐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김제시에서 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해주는 행사로 청소년이 직접 행사를 기획·홍보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제1회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동아리 밴드 및 댄스팀이 공연하는 공연마당과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이달의 꽃 한송이 포장 배우기', '냅킨아트 컵 만들기', '지평선 쌀 외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마당을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참여기구와 청소년동아리 활동 홍보부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MBTI 성격검사 상담과 MBTI 팔

찌(키링)를 만들 수 있는 체험부스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는 이달을 시작으로 5월 김제시 청소년의 날 행사, 7월 스트릿유스파이트, 9월 김제시 자원순환 새로보미 환경축제, 11월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연계 행사를 끝으로 총 5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